

## ◆ 會員社 動靜 ◆

**曉星重工業(株), SIEMENS사와 기술계약 체결**

曉星重工業(株)(代表:柳鍾烈)는 최근 독일 SIEMENS사와 대구 지하철 전 노선에 소요되는 AC견인전 동기에 대한 기술제휴 계약체결과 함께 대구 1호선 추가 물량인 52대분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983년 서울 지하철 2호선에 DC 견인전동기를 생산, 납품한 바 있는 효성중공업은 최근 반도체 기술 및 제어기술의 발달로 철도차량 분야에도 주전동기로서 AC견인 전동기를 이용한 VVVF 인버터 시스템이라는 신기술이 널리 보급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이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SIEMENS 사의 기술을 도입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이번에 기술도입한 AC견인전동기는 신절연시스템을 도입하여, 소형, 경량화를 이룩한 기종으로 타 전동기 분야에도 기술적인 과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차량 전장품 전문회사로의 성장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金星計電(株), 국산 PLC 年 판매량 3만대 돌파**

국내 최대의 FA업체인 金星計電(株)(代表:白重英)의 순수 독자모델 PLC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年 판매량 3만대를 돌파했다.

이번 PLC 3만대 돌파는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호황에 힘입은 점과, 매년 7~8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고성능의 신기종을 연속 출시하여 고객의 PLC 선택의 폭을 넓힌 것과 철저한 A/S로 고객들로부터 제품의 신뢰성을 인정받는데 따른 것이다.

이는 국내 PLC 구입자 2명중 1명꼴로 금성계전 PLC를 구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총수요의 약 50%(금액기준 약 20%)에 해당하는 수량이다. 일본의 '94년 PLC 생산대수 85만대에 비교할때 4% 수준이지만 일본과의 경제규모를 비교할때 상당한 몰량이라 할 수 있다.

금성계전 PLC의 3만대 판매 돌파는 지난 '82년 국내에 PLC 도입된 이후 12년 만에 달성한 성과이며,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한 PLC로 외국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年 판매량 3만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국내 PLC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판매량 3만대중 약 10%가 수출 몰량으로 지금까지 국내 PLC업계가 초소형제품의 OEM 수출에만 의존해온 상황에 비추어볼때 금성계전이 자체기술로 개발한 PLC를 해외에 직접 수출한 사실은 국내 PLC 수출 수준을 한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금성계전은 지난 '90년 MASTER-K50 및 MASTER-K250 두 기종에 대해 미국의 UL 규격과 캐나다의 CSA 규격을 취득하여 세계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였다.

한편 2000년에 세계 10대 PLC업체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금성계전은 '95년 판매 목표를 5만대로 세워놓고 이를 위해 올해반기에 국제규격(IEC)에 적합한 명령어와 통신 NETWORK를 갖춘 대형 PLC 등 5종의 신기종을 출시하여 국내에서의 시장개척은 물론이고 중국 및 유럽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 極東電線工業(株), '94年 매출액 4백 9억원

전력·통신 케이블 전문제조업체인 極東電線工業(株)(代表:李滄鍾)는 지난해 4백 9억원 규모의 매출실적을 올려 전년동기 367억원에 비해 11%정도 신장을 기록했다.

동사의 지난해 이같은 영업실적 향상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선박용전선 수출호조와 전력 케이블의 판매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지난해 ISO 9001 국제규격 인증획득과 난연·무독성케이블 개발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이미지가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극동전선의 지난해 부문별 매출 동향은 전선분야 394억원 콘넥타 11억원 재료 등의 기타분야가 5억원 규모의 실적을 올렸으나 올해도 전력용, 선박용, 고무전선등의 판매증가가 기대되고 있어서 527억원 규모의 매출실적을 올려 약 11.7% 상당의 신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二和電機工業(株), 그린 UPS 輸出

二和電機工業(株)(代表: 裴壽潤)가 자체기술로 개발한 첨단제어방식인 무정전전원장치 그린 UPS를 상반기중 우즈베크지역에 20억원어치를 수출키로 했다.

동사가 지난해 개발한 그린 UPS는 정류기 및 인버터에 모두 대전류 스위치반도체(IGBT) 소자를 채용 정류방식을 액티브 필터형으로 개선했으며 인버터방식을 비선형 부하에도 대응가능한 삼상 개별제어에 의한 순시파형제어방식을 적용, 삼상 불평형 부하에서도 제한없이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할수 있으며 최대 8대까지 병렬운전이 가능하고 고조파로 인한 타기기의 오동작을 유발하거나 케이בל 및 스위치 등을 과열시키는 기존의 전원공해 문제를 완전 해결한 제품이다.

## 金星機電(株), '95年 환경관리 모범업체로 지정

金星機電(株)(代表: 李鍾洙)는 환경부로부터 '95년 환경관리 모범사업장으로 지정받았다.

금성기전 천안공장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폐수를 유기폐수, 무기폐수, 신·알카리 폐수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처리, 이를 법적 허용기준치의 10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하였고, 대기오염물질은 정화과정을 통해 기준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관리하여 공장은 물론 주위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었다.

금성기전은 폐합성수지, 폐수처리오니, 폐유와 같은 산업폐기물의 위탁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비용, 청결)을 해결하기 위해 '95년에 7억원을 투자,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 소각로를 건설하고, 또한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환경관리 모범사업장으로 지정된 천안공장은 '93년 4월 공장이 가동된 후부터 지금까지 “공해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폐수처리장, 소각로, 폐유보관소, 금속편류보관장 건설에 총 30억 원의 투자를 하였으며 환경시설 투자와 아울러 천안공장은 1사 1하천 정화운동, 일본과 미국의 첨단환경시설 견학, 국토 대청결운동, 호나경보전 자매결연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 기업이미지 제고와 같은 큰 성과를 보기도 했다.

## (株) 有裕, 전자식 안정기 市場 참여

릴레이 전문생산업체인 (株) 有裕(代表 : 鄭淳煥)가 최근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전자식 안정기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

릴레이 및 아모퍼스 합금생산업체인 동사는 93년 국내 최초로 생산하고 있는 비정질(아모퍼스) 코어를 활용한 고품질의 전자식 안정기를 생산·국내 시판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동사는 아모퍼스 코어를 전자식 안정기 제조 업체에 공급해왔으나 3월부터 同社 강남구 신사동 공장에서 월 2만개 규모의 전자식 안정기를 생산, 우선 OEM 방식으로 국내시장에 공급하며 국책과제로 개발중인 나트륨燈용 전자식안정기도 하반기부터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질 코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 최대 수요시장인 SMPS(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용 새추리블(과포화) 코어를 앞세워 SMPS 주력 생산국인 홍콩·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공략에 나서는 한편 ISDN 펄스 트랜스 포머와 고주파용접기 등에 수요가 늘고 있는 비정질 컷 코어를 최근 개발 대만을 중심으로 본격 수출할 계획이다.

아모퍼스코어는 기존의 페라이트 코어에 비해 2.5배 비싼 반면 손실이 적고 자장 투과율이 페라이트 코어의 2백배에 달하며 온도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